

대학별 논술고사의 정체성과 방향성*

김동환**

< 차례 >

- I. 논의의 전제와 초점
- II. 통합교과형 논술로의 전환—그 실제적 요소들
- III. 대학별 고사로서의 정체성과 방향성을 위한 제안
- IV. 맺음말

I. 논의의 전제와 초점

이 논의의 전제는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첫째, 논술 고사는 국어교육과 불가분의 관련을 지니고 있다. 그것이 중·고등학교 교과 구성을 비롯한 제도적인 측면이든 읽기와 쓰기에 관련된 국어능력의 평가라는 교과 내적인 측면이든 깊은 관련성을 지닌 것이 현실적인 상황이다. 물론 고등학교 교실에서 대부분 논술고사 지도의 몫은 국어교사가 대부분이라는 점도 포함된다. 따라서 국어교육 관련 학회에서 논술고사에 대한 평가 내지는 동반자적 제안을 수행하는 일은 대학이나 학회 모두에게 필요한 일이다.

* 본 연구는 국어교육학회 제36회 학술발표대회(2007. 4. 21)에서 발표한 내용을 수정한 것임.

이 논문은 2007년도 한성대학교 교내 연구비 지원과제임.

** 한성대학교

둘째, 대학별 논술고사는 현재의 교육적 환경 내에서는 초·중·고등학교 교육에 미치는 영향력이 막강할 수밖에 없기에 최소한의 공분모적인 성격을 지녀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분모를 형성할 수 있는 제도적 논의장치가 없는 상태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교육과정’ 자체가 무력화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논의를 위한 장치가 필요하며 이를 관련학회에서 수행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전제하에 이 논의의 초점을 다음 두 가지에 맞추고자 한다.

첫째, 과연 2008학년도부터 시행될 대학별 고사는 정체성을 지니게 될 것인가 하는 점이다. 대학별 고사가 정체성을 지니지 못한다면 대학이 본고사를 필요로 하는 이유도 성립되기 어려울 것이며, 고등학교 교육에 미치는 영향도 그리 긍정적이지 못할 것이다. 예측가능하지 않은 입시는 불안감과 불신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주요 대학들이 밝힌 2008학년도 논술고사가 2007학년도 입시에서 치러진 논술고사와 차별적인 정체성을 지니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둘째, 국어교육학회에서 담당할 수 있는, 논술고사의 교육적 영향력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행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역할은 무엇일지를 모색해 보고자 한다. 이 점은 2008 입시 이후 주요 언론이 시도할 가능성이 있는 ‘대학별 본고사 검증’과, 학교 현장에서 요구하는 타당하고 신뢰할 수 있는 ‘평가 시스템 요구’와 관련된 시의적이고 우선적인 논의의 틀을 제공할 수 있으리라는 점에서 학회의 고유한 역할 수행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2008학년도에 논술고사를 시행하게 되는 대학은 40여개를 상회하고 있다. 그 대학들 중 검토의 대상이 될 만한 자료를 제공하는 대학은 그리 많지 않다. 이 논의에서는 현실적인 맥락을 고려하여 모의고사를 실시하고 최소한의 관련 정보를 제공한 바 있는 세 대학을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대학명은 논의에 방해가 될 여지가 있으므로 밝히지 않고 A, B, C대학으로 표기하고자 한다.

II. 통합교과형 논술로의 전환—그 실제적 요소들

대부분의 대학은 2008학년도부터 새로운 성격의 논술고사를 실시한다는데 보조를 맞추고 있고, 일명 ‘통합교과형 논술’이라는 명칭으로 그 새로운 성격을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대학들이 구상하고 있는 새로운 논술이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지 분석해 보고자 한다. 검토 대상은 자료의 신뢰성을 얻기 위해 대학에서 모의 논술고사를 실시하고 그와 관련된 자료를 공식적으로 제공한 경우로 한정하고자 한다. 이에 해당하는 대학은 지난 주 초까지 시행한 세 대학인데, 편의상 A, B, C로 지칭하고자 한다.

검토 방식은 2007학년도까지 진행된 논술고사와 2008학년도 입시를 위한 가이드라인 형식으로 실시한 모의고사를 몇 가지 범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그 초점은 과연 의미있는 변화가 무엇인지를 추출하는 데 있다.

1. 구성 요소들

논술시험은 기본적인 요소로 논제와 제시문, 조건 등으로 구성된다. 이 구성요소들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자.

가. A 대학의 경우

| | | 07정시 | 08 모의 |
|-----|----|---|--|
| 제시문 | 성격 | 예술의 효용성을 다룬 글 | 소비의 의미와 구조라는 주제 하에 느슨하게 연결된 제시문들 |
| | 관계 | 설명적(3) + 비판적 (1) | 글 2 (비판 / 조작) + 시 + 통계도표 |
| | 구성 | (1) 정약용, ‘악론(樂論)’ (2) 이형식, 프루스트의 예술론 (3) 하우스켈러, 예술이란 무엇인가 | (1) 장 보드리야르, 소비의 사회 (2) 마인하르트 미셀, 성장의 종말 (3) 최정례 ‘빵집이 다섯 개 있는 동네 |

| | | | |
|------|----|--------------------|-----------------------|
| 제시문 | 구성 | (4) 벨스 굿맨, 예술의 언어들 | (4) 국민총생산, 에너지·전력 소비량 |
| 논제 | 형식 | 단일 논제 | 복수 논제 |
| | 실질 | 주제 + 연관관계 + 자신의 생각 | 요약 + 논지분석/ 해설 + 설명/논증 |
| 분량 | | 1600~1800 | 400 + 700 + 700 |
| 유의사항 | | 요약이나 전제 금지 | 전제 금지 |
| 특기사항 | | 전통적인 언어논술 | 통합논술 |

[논제]

- * 정시-다음 네 개의 제시문은 하나의 공통된 주제와 관련된 글이다. 그 주제를 말하고, 제시문 간의 연관 관계를 설명하시오. 그리고 그 주제에 관한 자신의 생각을 논술하시오.
- * 모의1-제시문 (가)를 400자 내외로 요약하시오.
모의2-제시문 (나)의 논지를 밝히고, 이것을 참고하여 제시문 (다)를 해설하시오.
모의3-(라)의 표에 나타난 우리나라 경제성장과 에너지 소비 변화의 특징을 설명하시오. 그리고 제시문들을 참고하여 1970년 이후 전력 소비량이 급격히 증가한 이유와 의미를 사회변동과 관련시켜 논술하시오.

나. B 대학의 경우

| | | 07정시 | 08 모의 - 가형 문항 1 |
|-----|----|---|---|
| 제시문 | 성격 | 사회변화를 다룬 글이나 예화 | 민주주의와 정보화와 관련된 글들 |
| | 관계 | 한국+미국+자연현상 | 미래 예측+현대 상황+미래 전망 |
| | 구성 | (1) 사회교과서 들 발췌·정리 (2) 엘빈·하이디 토플러, 부의 미래 (3) 예화 모음 | (1) 덕 모리스, 인터넷과 직접민주주의 그리고 쌍방향 대화 (2) 고등학교 도덕 교과서 (3) 고등학교 사회문화 교과서 |
| 논제 | 형식 | 단일 논제 | 복합 논제 |
| | 실질 | 비교·논술+예화 연관 의미+예측 이유 | 공통 주장 요약과 주장에 대한 반론+구상과 실현 방안 |
| 분량 | | 2500자 | 20+600+800 |

| | | 08 모의 - 가형 문항 2 | 08 모의 - 가형 문항 3 |
|-----|-------------|---|---|
| 제시문 | 성격 | 수리적 해석의 오류를 다룬 글들 | 세계화와 관련된 현상을 다룬 글들 |
| | 관계 | 도입+수리적 원리+사실 관계 | 과거 상황+현재 상황 |
| | 구성 | (1) HIV 바이러스 발병 (조건부 확률) (2) 사회적 문제의 확률문제화 | (1) 철종실록과 승정원 일기 [고등학교 교과서] (2) 고등학교 경제 및 경제지리 교과서 (3) 이홍정의 글 / 후쿠자와, 문명론의 개략 / 용호한록 [고등학교 교과서] |
| 논제 | 형식 | 복합논제 | 복합 논제 |
| | 실질 | 판단 이유+주장 비판+방안 제시 | 유사점과 차이점 설명 평면 문제에 대한 대책 |
| 분량 | 300+400+500 | 400+1000 | |

[논제]

- * 정치- 지식 정보화 시대에 우리 사회 각 영역은 어떤 속도로 변화해야 하는가?
(조건 1) [제시문 가]의 내용을 [제시문 나]의 내용에 비추어 논하라.
그 과정에 미국 사회와 우리 사회의 변화 속도를 비교하라.
(조건 2) 예화 1,2,3을 사회의 변화 속도와 연관지어 그 의미를 파악하라.
(조건 3) 세 개의 예화 가운데 하나를 택하고 그 입장에 서서 기업, 가족, 정부의 변화 속도를 예측하고 그 이유를 밝혀라.
- * 모의(가-1) 1-위의 세 제시문이 공통적을 주장하는 바를 요약하시오.
모의2-각 제시문의 핵심적 주장에 대한 반론을 제시하시오.
모의3-위의 논의를 토대로 정보화 시대의 이상적인 민주주의를 구상해보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기술하시오.

다. C 대학의 경우

| | | 07 정치 | 08 모의 |
|-----|----|---|--|
| 제시문 | 성격 | 타자 이해의 어려움을 여러 각도와 층위에서 드러낸 글들 | 개인들 사이의 협력과 이를 통한 사회 구성의 가능성을 다룬 글들 |
| | 관계 | 무작위 추출 | 문제제기+해결책 |
| | 구성 | (1) 장자, 추수 편 (2) 토마스 네이글, 박쥐의 입장에서 느 | (1) 데이비드 흄, 인성론 중 도덕편 (2) 베스터, 도쿄의 이웃 |

| | | | |
|------|-------------------|------------------------------------|---|
| 제시문 | 구성 | (3) 김유정, 동백꽃 (4) 폴 처칠랜드, 물질과 의식 | (3) 시몬느 드 보부아르, 계약결혼 (4) 각국의 변호사 수 비교표 |
| 논제 | 형식 | 단일 논제 | 복합 논제 |
| | 실질 | 분석·설명+극복 가능성 논술 | 문제 및 해결책 파악 본인의 선택과 이유+특징과 변화 해석 |
| 분량 | 1800 | | |
| 특기사항 | 동·서양, 다양한 소재에서 출제 | | 다면사고형 논술 |

[논제]

- * 정시-나 자신이 아닌 다른 존재의 느낌과 생각을 과연 이해할 수 있는가? 아래 제시문들을 비교 분석하여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설명하고, 그러한 어려움이 극복될 수 있는지 사회현실의 예를 들어 논하시오.
- * 모의1-제시문 (가)에서 제기되고 있는 문제는 무엇이며, 이 문제에 대해 제시문 (나)와 제시문 (다)는 각각 어떠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는지 비교하시오.
 모의2-서로 다른 방식의 인간관계를 제시한 제시문 (나), 제시문 (다) 가운데 본인은 어떤 방식이 보다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지,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인지 밝히시오.
 모의3-제시문 (나), 제시문 (다)를 참조하여 제시문 (라)의 두 표에 나타난 한국사회의 특징과 변화를 해석하시오.

이상에서 개략적으로 살펴 본 내용들을 통해 몇 가지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1) 제시문 선정의 원리는 마련될 수 없는 것인가?

각 대학에서 공개한 자료에는 제시문 선정의 원리에 대한 ‘정보’가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있지 않다. 이는 출제 기술상 제시문이 어떤 원리에 의해 선정되고 그에 따라 논제가 작성되기 어려운 측면도 있다. 그렇지만 수험생이나 교사들의 입장에서는 지속적인 학습을 설계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논술에 대해 감각적으로 어려움을 느끼게 되는 원인이 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거의 대부분의 대학들이 선정한 제시문들은 그야말로 ‘어떤 글들도 가능하다’ 정도의 열린 원리에 기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물론 제시문들을 ‘이러이러한 범주’ 내에서 제시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비교육적일 수 있다. 속칭 ‘찍기’를 유도할 개연성이 높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가능한 독서’를 유도하기 위한 범주 제시 정도는 필요하리라 본다.

위에 예를 든 대학들 중에는 C 대학의 경우가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만 그 내용을 상세히 살펴보면 그리 생산적인 정보로 보기는 어렵다. “우리 대학의 논술고사는 ‘한국 및 동서고금의 고전을 포함한 다양한 소재에서 출제’한다는 서울지역 12개 대학의 합의(1997년 12월)에 따라 출제되고 있다.…… 동서양의 고전과 현대사회에 관한 여러 책에서 고루 선정하였다. 비록 제시된 책들을 직접 읽지 않은 학생들이라 하더라도 꾸준한 독서를 통해 다양한 지적 경험을 쌓은 학생들이면 충분히 이해하고 자신의 생각이나 관점에서 논술할 수 있게 하였다.”(2007 정시 보도자료)¹⁾

이런 면에서 ‘통합교과형’으로의 전환과 제시문 선정은 그다지 긴밀한 연관성을 갖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이전의 논술고사와 별다른 차별성을 찾기 어렵다.

2) 제시문의 ‘교과서 글’을 통해 ‘통합교과형’이 구현되는가?

일선 교육 현장에서는 통합교과적 논술의 대표적인 경향의 하나로, 제시문을 통한 여러 교과(서)의 직접적 통합성을 들고 있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제시문의 성격들을 살펴 보면 대 교과(서)에 대한 접근은 일반적인 경향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일선 현장에서 여러 교과서 글을 지문으로 활용하는 것을 ‘통합교과형의 상징’이라고까지 보는 것은 매우 문제적이라 할 수 있다.

1) A대학의 경우 ‘시사적인 문제나 특정 분야의 지식을 붙는 주제를 선택할 경우에는 오히려 독해 능력과 사고능력 및 표현 능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어려울 것이기 때문에, 보편적인 주제와 이를 적절하게 설명하는 제시문을 선택하고자 하였다.’ 정도로 언급하고 있다. 그런데 시사적인 문제와 보편적인 문제가 명시적으로 구별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그보다도 먼저 각 대학들이 사용하는 논술고사의 개념 자체도 사뭇 다르다. 이는 일차적으로는 각 대학들이 서로 간의 차별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용’의 결과로도 볼 수 있다.

A대학은 ‘통합논술’ 또는 ‘통합교과적 논술’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다양한 영역의 사고가 상호 연관되는 측면’을 살리기 위해, 인문학적 접근과 사회과학적 측면이 서로 어우러질 수 있도록 하는 데서 통합교과의 개념을 찾고자 하고 있다.

B대학은 ‘통합교과형 논술’의 개념은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통하여 학생의 내면에서 길러지는 사고력의 통합을 의미’하며 ‘통합적 사고력 측정’은 수험능력시험의 기본 방향과 일치하고 있음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교과서 지문은 ‘사교육에 의존하지 않고도’ 준비할 수 있음을 밝히는데 있다고 밝히고 있다.

C대학은 ‘다면사고형 논술’이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으며 학력, 이해력, 분석력, 창의적 사고력, 표현력 등의 다양한 지적 능력 등이 평가의 대상임을 밝히고 있다.

이런 내용을 살펴건대 현재 학교 현장이나 사교육 시장에서 진행되고 있는 ‘통합교과형 논술’에 대한 다양한 정의와 접근은, 사실은 ‘만두 빚기’와 같은 형국이 아닐 수 없다. 그 속과 모양, 재료가 다를지라도 ‘만두’로 인식될 수 있는 형체만 갖춘다면 되는 식으로 난맥상을 이루고 있다. 이 대목에서 정확하고 효용성 높은 정보를 수집·제공할 수 있는 공신력 있는 매개가 필요하단 이유가 있을 것이다.

물론 대학 당국이 제시하는 정보가 제일 정확하다고 할 수 있지만 앞에서 본 것처럼 서로 간의 차별성을 위한 설명 방식의 차이가 오히려 혼란을 줄 개연성이 크다. 한 대학의 다음과 같은 항변성 설명은 그 저간의 사정을 말해준다.

“사실 통합논술로의 전환은 충분한 사전적인 검토를 통해 선택된 최선의 대안이라기보다는 여러 가지 외부적 사정으로 인하여 급작스럽게 선택되었던 차선의 대안이었다…… 본고사 형이라는 문제가 제기되고……강도 높은

제제가 가해진 상황이었고... 가정 먼저 염두에 두어야 했던 것은 종래의 논술과는 달리 본고사형 시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부가시켜야... 통합논술이라는 명칭에 걸맞게... 우수 학생의 선발이라는 입시제도 본연의 목적에도 신경써야만 했다.”²⁾

3) 논제와 그 구성에서 보이는 대동소이함

‘통합교과형 논술’이 이전의 논술고사와 구별되는 가장 큰 외형적 차이점은 논제의 구성 방식이다. 이전에는 대체로 하나의 논제를 주는 방식에서 복수 문항 복수 문제 형식으로 구성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학교 현장이나 사교육 현장에서도 이 점을 중시하여 준비학습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논제 구성 방식이 과연 ‘통합교과형 논술’의 정체성을 말해주는가 하는 문제를 검토하다보면 그리 긍정적인 답을 하기는 어렵다. 앞에서 정리된 표에서도 확인할 수 있겠지만 단일 논제가 복합 논제가 된다고 해서 그 논제의 성격이 본질적으로 바뀌지는 않았다고 보기 때문이다. 기왕의 단일 논제들은 형식만 단일할 뿐이지 실제 수험자가 해결해야 할 문제들은 충분히 복합적이었다. 외면상으로도 한 논제 안에 2-3개의 조건형 문제나 순차적 문제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오히려 잠재적인 문제들을 표면상으로 노출시켰다는 측면에서 ‘분리사고적 논술’들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같은 문제를 기존의 논술에서는 2~3개의 활동을 통해 해결하라고 했다면, 통합교과형 논술에서는 6~7개로 나누어 해결할 것을 유도하고 있기 때문에, 과장해서 표현한다면 오히려 분석적이고 단편적인 문제해결능력의 측정에 가깝다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단적으로 기존 논술에서 금지사항이던 요약활동이 첫 안내활동에 가깝게 출제되고 있음을 예로 들 수 있다.

2) A대학 2008 논술 모의고사 보도자료.

2. 논술고사의 목표

앞에서도 어느 정도 언급했지만 새로운 논술고사로의 전환은 명칭의 다양성에 확인할 수 있듯이 그리 연착륙은 아닐 듯싶다. 주요 대학들이 수험생들과 학교 현장에 도움을 주기 위해 2~3차례의 모의고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공하고자 하는 이면에는 대학 스스로 그 결과에 대해 확실성을 부여하지 못하기 때문인 맥락도 작용하고 있을 것이다.

우선 각 대학들이 밝히고 있는 출제 목표 또는 의도를 살펴보도록 하자.

A대학은 ‘대학에서의 수학능력에 대한 평가’와 ‘고등학교 내신 성적 및 능숙시험 성적에 대한 보정’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전자의 목표는 대학별 고사를 치러야 하는 이유를, 후자의 목표는 논술고사의 필요성에 대한 당위적 설정이라는 점에서 보편적인 목표일 것이다. 따라서 보다 의미있는 사항은 출제의 기본방향이라 할 수 있다. 이 대학은 첫째 목표를 위해 ‘텍스트를 분석하고 이해하는 능력’ ‘자신의 견해를 조리 있게 표현할 수 있는 능력’ ‘단편적 지식을 종합하여 새로운 관점으로 발전시키는 창의적 능력’을 평가하겠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여기에서 세 번째로 주어진 항목이 ‘통합교과형’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이는데, 궁극적으로는 그 방향을 ‘창의적 능력’에서 찾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B대학에서는 ‘비판적 사고력과 창의적 문제해결능력 측정’ 외에 특별한 목표나 출제방향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 유달리 강조하고 있는 것은 ‘중등학교 교육의 정상화 유도’라는 외적 맥락이다. ‘통합교과형’의 개념도 이 맥락에서 도입하고 있는데, ‘특정 교과 지식에 묻고 그 답의 옳고 그름을 평가하는 결과 중심형 시험이 아니라, 고등학교 교과과정에 제시된 내용을 토대로 주어진 문제 상황을 다각적이고 심층적인 사고로 재구성하여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논리적으로 서술하는 능력을 측정하는 과정 중심형 시험’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C 대학에서는 ‘다면사고형 논술’이라는 명칭에 대해 공식적인 자료를 통해 명시적으로 밝힌 바는 없지만 모의고사와 관련된 결과 발표 과정에

서 문답을 통해 대강의 개념을 밝힌 바 있다. ‘사물이나 사실을 분석하고 평가할 때 얼마나 유연하고 통합적인 사고를 하는지 측정하는 논술 시험…… 고등학교의 개별 교과 과정에서 습득한 지식을 창의적으로 통합하고 다면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지 측정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통합이라는 명칭보다는 ‘다면적’이라는 용어에 중점을 두고 있다.

그런데 이들 자료들을 보면서 떨쳐 버릴 수 없는 것은 ‘그렇다면 이전 논술고사들은 어떤 시험이었나’하는 의문이다. ‘통합(또는 다면)’이라는 직접적인 개념 외에 이전 논술시험들과 구별되는 어떤 본질적인 요소를 찾기는 힘들다. 이전 시험들의 의미를 부정한다면 모를까, ‘이해·표현·창의’ 등의 용어는 논술이라는 형태의 시험에서는 필수적인 요소가 아닐까 싶다. ‘새로운 논술고사’일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제시하기 위한 대학들의 봉사 정신이 절실히 요구되는 대목이기도 하다. 그리고 그러한 태도들이 제도적인 강제성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발성에 의해 이루어질 상황을 기대하기도 한다. 제도적 강제성과 자발성 사이의 매개체가 필요한 연유이기도 하다.

현재 우리 대학들의 논술고사는 외부에서 주어진 허명에 매달려 본질을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본다. 사실 통합교과형이라는 개념에는 ‘官의 그림자’가 짙게 깔려 있기 때문이다.

3. 평가기준

논술고사의 또 다른 축은 평가기준이다. 대학의 입장에서도 객관적이고 타당한 평가기준을 마련하고, 그에 따른 채점이 이루어질 수 있어야 시험의 존재의의가 인정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통합교과형 논술’에서는 어떤 장치를 통해 그 개념이 구현될 수 있는지가 중요한 문제로 떠오르게 될 것이다. 논제는 어찌어찌해서 ‘통합’에 이른다 하더라도 평가 기준이나 채점이 그것을 뒷받침해 줄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A 대학은 ‘논제를 개별화하여 구체적인 항목마다 평가기준을 마련함

으로써 객관적인 평가기준을 마련'하려고 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런데 평가 기준 자체에서 '통합'을 구현할 장치는 없어 보인다. '통합적 측면을 위하여 제시문들을 함께 묶어서 제시하되 논제를 개별화……'라는 대목은 그 어려움을 말해주고 있다. '더 좋은 점수 얻기 위한 유의사항'을 통해 제시된 구체적인 평가기준은 '논제가 요구하는 바를 정확히 파악하고', '요구되는 항목에 대한 분명한 답을 주고', '자신의 주장을 명확하고 설득력있게 제시하고', '자신의 표현으로 정리하며 활용'한 것을 높이 평가하는 것으로 설정되고 있다.

B 대학에서는 좀더 구체적인 항목으로 제시되고 있다. 평가 항목으로는 '지시사항 이행 여부' '이해 분석력' '논증력' '창의력' '표현력' 등인데, 창의력은 다시 '심층적·다각적·독창적'의 세 측면으로 나누고 있다. 여기에서도 역시 '통합'이라는 개념이 직접적으로 작용하고 있지는 않다. 이전 시험들과 관련된 자료들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 기준들이 여전히 작용하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C 대학의 경우 구체적인 기준을 명시적으로 제시하고 있지는 않고, 답안의 전체적인 경향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자료 분석의 풍부성'이 관건이 되고 있음을 파악할 수는 있었다. 여기에서도 여전히 통합의 개념은 채점의 기준으로 구현될 여지는 없어 보인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평가 기준을 통한 '통합교과형'의 구현은 어려워 보이고 그에 따른 대학별 고사로서의 구체성이나 정체성을 언급하기도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통합교과형 논술'의 개념은 추상적이거나 표면적인 맥락에서 그 성격을 지켜나갈 것으로 예측된다.

Ⅲ. 대학별 고사로서의 정체성과 방향성을 위한 제안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2008학년도 입시부터 시행될 '통합교과형 논술'의 구체적인 상은 아직 형성 중에 있다. 대학별 고사로서의 정체성도

아직은 불분명하고 방향성도 명확하게 제시되고 있지 않다. 이는 현실적인 제도로서의 논술고사에 치중하고 학적 연구의 대상으로서의 ‘논술시험’에는 관심을 기울여오지 않은 탓도 있다.³⁾ 대학에서 논술시험을 시행하는 주체들은 연구자라기보다는 행정가의 입장에 놓이게 된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불가피한 측면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논술’이라는 개념 자체는 학적인 접근을 통해 고구되어야 할 대상이다. 그동안 국어교육에서 ‘쓰기’라는 영역에 대한 연구물들을 통해 다루어지고 있기는 하지만 ‘논술’ 자체에 대한 심도 있는 접근이 전반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렇다보니 대학에서는 출제위원회나 출제자들의 개별적인 경험이나 판단에 의거해 논술고사를 시행하는 경향이 강하다. 이는 지양해야 할 양상이다. 특히 입시 제도가 공교육의 틀을 형성하는데 강력한 영향을 행사하는 사회적 상황에서는 더구나 그에 대한 체계적이고 심도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최소한의 학문적 접근 결과를 토대로 하여 논술고사가 설계되어야 할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다음과 같은 제안들을 하고자 한다.

1. 통합교과형 논술이라는 개념에 대한 생산적이고 집단적인 접근 수행

우선적으로 입시 수험생이나 학교 현장이 구체적이고 실체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논술’ 또는 통합교과형 ‘논술’이라는 개념에 내포적·외연적 개념 규정 노력이 필요하다. 언론사나 출판사 등이 입시를 상품화하는 측면에서 다양한 맥락의 규정들을 하고 있지만 막상 대학들의 입장에서는 명료한 규정을 시도하고 있지 않다. 입시 정책의 특성상 구체적이고

3) 대부분의 연구자들이 대학에 재직하고 있다는 점, 입시제도나 결과는 대학의 이미지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점 등이 학적인 접근이 수월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일차적인 원인이 되기도 한다. ‘논술’에 대한 본격적인 접근을 시도한 가장 최근의 연구물로는 다음을 들 수 있다.

원진수, 「논술 개념의 다층성과 대입 통합 교과 논술 시험」, 『국어교육』 122, 2007.

명료한 규정들이 사회적인 논란의 대상이 될 수도 있고, 수험생 등 관련 자들과의 시비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기피하게 되는 측면도 있다. 그렇지만 새로이 시행하게 될 ‘통합교과형 논술’이라는 개념에 대해서는 그런 측면보다는 토대가 되는 논의 자체의 부족이라는 측면이 강하게 드러나고 있다. 물론 ‘통합교과형 논술’이라는 개념 자체가 각 대학들이 개발하고 수용한 것이라기보다는 외부에서 주어진 성격이 강하기에 생기는 문제도 내포되어 있다.⁴⁾ 그러나 입시제도가 지니는 교육적 의미를 고려할 때 사회적 동의가 가능한 개념 규정을 위한 노력들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통합의 의미, 교과에의 구체적 양상, 이 유형이 요구하는 사고력, 문제해결에 필요한 과정적 활동 등이 개념 규정의 초점이 될 것이다. 이 개념 규정 작업은 그 속성 상 상당히 방대한 작업이 될 것이다. 특히 교과라는 요인과 사고력이라는 요인에 대한 본질적인 접근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검토해야 할 일은 개인으로서의 연구자와 집단으로서의 연구자 사이의 성격 차이에 따른 연구결과의 효용성이다. 개인으로서의 연구자가 내놓는 연구물에 기대어 한 대학의 입시가 진행되기에는 위험부담이 크다. 따라서 학회나 학회 연합 차원의 연구물이 보다 효용성이 클 것이다.

2. 교육 주체들의 수월성과 편의성을 고려하는 논술고사에 대한 정보 제공

현재 각 대학들은 여러 필요성과 여건 때문에 대학별 고사와 관련된 정보를 최소화하여 제공하고 있다. 그런데 정보가 최소화되다 보니 그것을 확대 재생산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그 과정에서 사교육 기관들이

4) ‘통합교과형 논술’에 대한 기초적인 접근은 이번 호에 실린 기획 논문들 중 박정하의 글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주도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 메커니즘이 형성된다. 공교육 담당자보다는 사교육 담당자들이 정보의 확대 재생산을 위한 투자에 훨씬 적극적이며 그 여건도 유리하기 때문이다.

학생들을 가르치는 입장에서 대상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정보는 필수적이다. 그러나 정보가 최소화될 경우 그 교육 내용은 빈약해지거나 신뢰도가 낮아지게 된다. 그렇다고 교육의 내용이 입시에 긴박되어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그러나 논술이라는 시험방식은 수능이나 내신과는 달리 그 자체가 교육적 대상으로 충분한 의의를 가지기 때문에 관련 정보는 교육의 내용에 직접적으로 관련될 수 있다.

제공되어야 할 정보들은 제시문의 선정 원칙이나 구성 방식, 논제를 조직하는 방향이나 의도, 평가방법 등이다. 이러한 정보들은 학교 현장에서 어떤 텍스트들을 읽을 것인가, 읽기의 과정이나 방법은 어떠한가, 설득할 수 있는 글들을 어떻게 쓸 것인가 등으로 학습목표화 될 수 있을 것이다.⁵⁾

이러한 정보제공은 대학들의 개별적인 창구를 통해 이루어질 수도 있겠으나 보다 객관적이고 일반적인 정보로 전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학회를 통한 정보제공의 방식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현재는 입시 후 교육인적자원부나 대학교육협의회 등에 보고 형식의 자료를 제출하고 있지만 그 자료들이 교육적 자료로 환원되지 못하고 있다. 학회에서는 입시가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각 대학들로부터 공개 가능한 자료들을 수집하여 학교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형태로 재조직하여 제공하는 방식이 가능할 것이다. 물론 재조직하는 과정에서 대학별 자료로서의 아닌, 교육내용으로 전환된 자료로서의 성격을 가질 수 있도록 연구자들의 관여가 충분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5) 예를 들어 제시문의 구성 원리를 놓고 볼 때, 복수의 제시문은 일차적으로 비교나 대조 등의 사고활동을 바탕으로 텍스트를 읽을 것을 요구한다. 이는 읽기 방법에 대한 교육 내용이 상당히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와 관련해서 다음을 참조할 것.

Jim Pinnells, *Writing: Process and Structure*, Harper & Row, 1998

김대행 외, 『논술 교과서』, 대한교과서, 2006.

대학들의 입장에서는 직접 관련 자료들을 제공하기 보다는 학회를 통해 우회하게 됨으로써 자료 공개에 따른 부담감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고, 학회로서는 실천적인 면모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교사나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수월성과 편의성을 확보한 교육내용의 설계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을 것이다.

3. 대학별 고사의 객관적 타당성에 대한 검증 장치 마련

거듭되는 말이지만 대학입시가 교육의 틀과 내용을 규정하게 되는 상황에서 입시를 구성하는 요소들의 객관적 타당성을 검증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물론 대학 자체에서 입시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과점들을 거치고 있겠지만, 제3자의 입장에서 객관적인 검증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⁶⁾ 대학의 선발권보다 공평한 교육권이 사회적으로 보다 의미있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석한다면 검증 과정이 대학의 신뢰성을 높여줌과 동시에 대학들이 해결해야 할 문제들을 제3자가 객관적인 입장에서 해결해주는 효과도 발생할 것이다.

논술고사의 타당성을 검증하는 일은 상당히 구체적이고 세밀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무엇보다도 대학별 고사로서의 목표와 의미가 구현되었는가를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 검증은 전형의 다른 요소 즉 내신 성적이나 수학능력시험 성적 등과의 상관성을 고려한다는 토대 위에 논술고사가 측정해야 할 요소들을 설정하는 일에서 출발하게 될 것이다.

제시문의 내용과 구성이 평가도구의 구성요소로서 적합한가, 논제의 설정이 적절한가, 채점 기준 및 방식이 문제적이지 않은가 등을 중심으로 검증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특히 채점 기준이나 방식에 대한 검증은 대학별 고사의 존립 근거를 다룬다는 점에서 보다 신중하고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수험생이나 학부모, 교사들의 입장에서는 논술이라

6) 이와 관련한 최근의 논의로는 다음을 들 수 있다.

이병민, 「논술고사의 성격 및 타당성 고찰」, 『국어교육』 121, 2006.

는 시험의 성격 상 채점이 정말 타당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해 ‘불안한 의혹’을 가지게 되는 것이 당연하며 그러한 의혹은 불신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피하기 어려운 문제이다.

예를 들어 앞서 살펴 본 바 있는 B대학의 경우 ‘채점 기준은 논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지, 창의적으로 문제를 설정하고 해결하는지, 논리적으로 서술하는지’라고 밝히고 있지만, 현자 교사들의 입장에서는 ‘창의적인지의 여부를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 수 없기에 전적으로 믿기는 어렵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특히 많은 대학들이 선택하고 있는 다음과 같은 방식의 채점은 그 타당성에 대한 의문을 갖게 하기에 충분하다.)

| 채점 항목 | 점 수 | | | | | | |
|-------------|-----|----|----|----|----|----|----|
| | 30 | 25 | 20 | 15 | 10 | 5 | 0 |
| 논리적 사고력(30) | 30 | 25 | 20 | 15 | 10 | 5 | 0 |
| 창의적 사고력(30) | 30 | 25 | 20 | 15 | 10 | 5 | 0 |
| 표현력(40) | 40 | 35 | 30 | 25 | 20 | 15 | 10 |

위의 표를 보면 논리적 사고력 항목에 30점을 배점하고 5점 단위로 구분하는 방식으로 점수를 부여하게 된다. 물론 논리적 사고력에서는 어떤 요소에 초점을 맞춰 판단하는가에 대한 세부 기준들이 있지만 결국은 25점을 줄 것인가 20점을 줄 것인가의 판단은 상당히 자의적인 기준에 의하게 된다. 수작업과 시간의 한계 상 이런 범박한 채점표를 구성할 수밖에 없게 된다. 채점 항목을 충분히 늘려야 하지만 물리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 이런 방식은 그 타당성에 의문을 제기할 때 명쾌하게 답을 할 수 있는 여지가 그리 많지 않다. 그러다보니 그 결과에 대한 ‘불안한 의혹’을 떨치기 어렵다.

학회 차원의 검증은 채점 기준 등을 구안해 내는 등의 방향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대학의 입장에서 위원회 등을 기동하여 다양한 방안

7) 이 내용은 실제를 그대로 제시할 수 없어 편의상으로 만든 것으로 그 기본 성격만 살렸다.

등을 탐색하고는 있지만 그와 관련된 작업을 할 수 있는 구성원들의 수가 제한적인만큼 학회 차원의 접근에 이르는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학회 연합 등의 방식을 통해 타당성을 확보한 방안을 제시한다면 매우 생산적인 수용이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위에서 살펴 본 채점 방식과 관련해서 다음과 같은 방식을 제안해 본다. 관심있는 연구자들의 의견을 구하기 위함이다. 위의 방식이 채점자들이 30~0점 사이에서 어떤 점수를 부여할지에 대해 고민을 하게 되는 것 자체가 타당성 확보의 어려움을 말해주는 것이기도 하는데, 다음 방식은 ‘점수 부여’가 아닌 ‘여부 판단’만을 하게 함으로써 타당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 본다. 또한 PC를 통한 전자채점 방식을 취함으로써 수작업으로 할 때 취할 수밖에 없는 최소 항목화(3~4개정도)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 PC를 통한 클릭 방식이라 채점 과정에 따른 수정도 가능하며 상당한 시간 단축도 가능하다.⁸⁾

| 채점 항목 | | 판정 내용 | | | 배점 | 특점 |
|--------|------|---------------|---------------|------------|----|----|
| 도 입 | | 참신하다 10 | 그저 그렇다 8 | 진부하다 6 | 10 | |
| 문제제기 | | 적절하다 10 | 에매하다 7 | 없다 3(0) | 10 | |
| 사례제기 | 유 무 | 사례 들었음 10 | 사례 없음 3(0) | | 10 | |
| | 평 가 | 적절하고 창의적인 사례임 | 적절하나 창의적이지 않음 | 적절하지 않음 | 10 | |
| 비 판 | 맥 락 | 적절하다 7 | 적절하지 않다 5 | 없다 3 | 7 | |
| | 논 리 | 논리적이다 | 에매하다 | 비논리적이다 | 8 | |
| 대 안 | 제 시 | 대안제시함 | 판단하기 어려움 | 대안제시 못함 | 7 | |
| | 내 용 | 참신함 | 그저 그리함 | 진부함 | 8 | |
| 표 현 | 구성력 | 뛰어남 | 보통임 | 부족함 | 10 | |
| | 어문규정 | 아주 잘 지킴 | 그런대로 지킴 | 지키지 못함 | 10 | |
| 정의적 평가 | | 매우 좋은 글 10 | 괜찮은 글 8 | 부족한 글 5(0) | 10 | |
| 총 득점 | | | | | | |

8) 이 표에서 모든 숫자는 채점 시 화면에는 나타나지 않으며 채점 후 출력 시에만 함께 점수까지 드러남. 이 안은 한성대학교 모의논술고사에서 시행한 것임.

IV. 맺음말

대학의 입시제도가 교육의 틀과 방향을 결정하는,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상황에서 제도의 핵심적 장치로서의 논술고사가 지니는 성격은 국어교과의 설계에 불가피한 간섭을 준다. 이 글이 살피고자 하는 것은 이런 맥락에서 대학별 논술고사의 정체성이었다.

대학별 논술고사는 과연 대학별 평가도구로서의 정체성을 지니고 있는가 하는 점을 살피면서 우선적으로 내세우고 있는 ‘통합교과형 논술’이라는 개념에 대한 최소한의 동의가 이루어졌는가 하는 의문을 갖게 되었다. 교육정책 당국이라는 외적 요인이 요구하는 가이드라인을 수용한 불완전한 명칭이며 그 내적 규정도 충분치 않다. 이런 상황에서 입시제도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학교 현장의 교육은 표류를 하게 될 개연성이 크다. 통합교과형 논술이 요구하는 사고력이나 표현능력을 중심으로 수업을 설계해야 하지만 그 성격이 불분명하기에 설계 자체가 어렵기 때문이다.

대학이나 정책 당국은 수험생이나 교사들에게 관련 정보를 충분히 제공해야 한다. 수학능력시험과 같은 경우에도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다 보니 공교육보다는 사교육에 보다 의존하게 되는 측면이 노정된 것처럼, 논술고사도 정보제공이 여의치 않을 경우 보다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여기게 되는 사교육에 귀를 기울이게 될 여지는 더욱 커질 것이다.

또한 대학별 논술고사의 평가체계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 장치도 필요하다. 채점의 방식이나 기준 등에 따라 결과가 현저하게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제3자에 의한 검증이 필요하게 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관련 학회들이 연합해서 이를 시행할 필요가 있다. 대학 당국의 입장에서 이러한 검증 절차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겠지만 객관적 타당성의 확보라는 차원에서는 전향적인 수용을 하게 되리라고 본다.

국어교과의 입장에서 논술고사가 국어교육의 범위와 깊이를 확장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계기는 현상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구체화되고 실천적인 대상이 될 것이다. 국어교육 관

런 학회들의 적극적인 대응, 즉 논술의 개념과 원리들의 탐구, 평가방안의 개발 등이 이루어지길 기대해 본다.*9)

* 본 논문은 2007. 6. 19. 투고되었으며, 2007. 7. 15. 심사가 시작되어 2007. 7. 29. 심사가 종료되었음.

■ 참고문헌

김대행, 『국어교과학의 지평』, 서울대출판부, 1995.

김대행 외, 『논술 교과서』, 대한교과서, 2006.

원진숙, 「논술 개념의 다층성과 대입 통합 교과 논술 시험」, 『국어교육』 122, 2007.

이병민, 「논술고사의 성격 및 타당성 고찰」, 『국어교육』 121, 2006.

한대호, 「프랑스와 한국의 대학입시제도의 비교연구-마칼로레아와 수학능력시험을 중심으로」, 『서양사학연구』 13, 2005.

Elizabeth Cowan, Writing, Scott Foresman & Company, 1996.

Jim Pinnells, Writing: Process and Structure, Harper & Row, 1998.

<초록>

대학별 논술 고사의 정체성과 방향성

김동환

이 논문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대학별 논술고사가, 통합교과형 논술이라는 지향점을 구현하고 있으며, 대학 입시를 위한 평가도구로서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를 검토해 보고자 하였다. 특히 학교 현장의 논술교육을 위한 맥락과 국어교육과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2008학년도 입시부터 시행될 통합교과형 논술에 대한 접근은 각 대학들이 시행한 모의고사를 통해 이루어졌다. 모의고사는 본고사와는 다르지만 차수에 따른 비교가 가능해서 그 성격과 문제를 파악하기에는 더 수월한 측면이 있다.

모의고사를 통해 드러난 주요 대학들의 논술고사는 ‘통합교과형 논술’이라는 개념에 대한 명확한 설정이 되었는지, 평가도구로서의 대학별 정체성이 분명하게 드러나는가에 대한 의문을 갖게 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기존에 실시해 온 논술과 그 성격이 크게 다르지 않으면서 외적인 요인 때문에 ‘통합교과논술’이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다는 판단을 하게 한다.

제시문의 선정과 평가 방식에 대한 정보는 제공되지 않고 있는데, 유형에 따라서는 평가의 객관적 타당성이 문제될 소지가 많다고 판단된다.

이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하였다. 그 제안은 다음과 같다.

1. 통합교과형 논술이라는 개념에 대한 생산적 접근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관련 학회를 중심으로 학제간 연구가 필요하다.
2. 교육 주체들의 수월성과 편의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입시 제도로서의 논술고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공교육의 내실화를 위해서도 정책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3. 대학별 고사 후 각 대학별 고사에 대한 학회 차원의 분석 또는 평가 자료를 작성하여 제공할 필요가 있다. 대학들의 경우에는 출제와 채점 등을 위한

위원회가 존재하지만 객관적인 평가를 하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는 만큼 관련 학회들이 연합하는 차원에서 검증 장치를 마련하고 그 결과를 관련자들에게 제공할 필요가 있다.

【핵심어】 통합교과형 논술, 평가도구, 객관적 타당성, 정보 제공, 검증장치

<Abstract>

**The Identity and the Direction of the essay-type examination
in university entrance examination based on the
subject-integration, particularized by each universities**

Kim, Dong-hoan

This article described a productive proposal for the essay-type examination in university entrance examination based on the subject-integration, particularized by each universities.

The proposals as follows :

1. A prescribing the notion about “an essay-type examination based on the subject-integration” is necessary to the candidates for the university entrance examination and the educational establishments. The prescribing demand the concrete and substantive property. For the task, a inter-scholarship approaches between the korean language education and the other scholarship is necessary.
2. The information about the essay-type examination is to be provided to the subjects of examination. This task is a matter with the university and the relevant government ministries. Without providing the information, the bad influence on the public education is could not be reduced.
3. After the work of entrance examination, researchers accomplish the role of verifying the objective validity of the essay-type examination in university entrance examination based on the subject-integration, particularized by each universities. Without the verifying system or process, a plan for the desirable education

is very difficult. Because in our society, the influence of university entrance examination is the most powerful factor in educational field. In this matter, the unified approaches of academy is an absolute work.

4. The researcher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must execute the role of approaching to the essay-type examination in university entrance examination based on the subject-integration, systematically and continually. Because the essay-type examination is essentially derived from the testing of candidate's language ability. Especially, to the principles of making questions and marking is academically checked by the researcher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Key words】 the essay-type examination, the subject-integration, inter-scholarship approaches, information about the essay-type examination, verifying the objective validity, the principles of making questions and marking

【토론문】

<대학별 논술고사의 정체성과 방향성>에 대한 토론문

이재기(한국교육과정평가원)

논술고사가 학교 교육에 미치는 영향력을 고려할 때, 논술고사가 갖는 교육적, 사회적 의의에 비추어 볼 때, 논술고사에 대한 국어교육 학문 공동체의 논의는 지나치게 한산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발표자가 논술과 관련하여 던지고 있는 목직한 문제 제기와 제안은 매우 반가운 일이다. 대체로 발표자의 논의에 공감하면서 함께 더 고민해야 할 몇 가지 문제를 기술하고자 한다.

I. 논의의 전제와 초점

I-1. 논술고사와 국어 교육

발표자는 논술고사가 국어교육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전제하고 “국어 교육 관련 학회에서 논술고사에 대한 평가 내지는 동반자적 제안을 수행하는 일은 대학이나 학회 모두에게 필요한 일”이라고 보고 있다. 이러한 제안에 대체로 동의하나 논술고사와 관련된 논의에서 국어 교육이 차지하는 자리는 어느 정도 제한적이고 부분적이라는 것도 인정할 필요가 있다. 논술고사가 외형적으로는 ‘쓰기’ 행위이기 때문에 국어 교육과의 관계가 깊은 것이 사실이지만, 글쓰기 행위가 탈맥락적인 행위가 아니라 ‘무엇’(주제)에 대한 글쓰기이고, 그 ‘무엇’이 글쓰기 행위를 깊숙하게 규정하며, 그 ‘무엇’은 인문, 사회, 과학, 예술 분야와 관련된 것이라고 볼 때, 국

어 교육 학문 공동체의 논술 논의는 어느 정도 제한성과 부분성을 지닐 수밖에 없다. 따라서 국어 교육 전공자가 논술 논의에 참여하기에 앞서 논술 담론의 지형에서 국어 교육이 갖는 위상과 정체성에 대해 먼저 고민할 필요가 있다. 각 학문 공동체가 논술과 일정한 거리를 두고 사고할 때, 그 빈 자리에서 논술에 대한 생산적인 담론이 생겨나고, 결국 논술 관련 논의가 더 넓어지고 깊어질 것이다.

II-2. 논술고사의 정체성

발표자는 대학별 논술고사는 “최소한의 공통 분모를 지녀야”하고, 정체성을 분명히 할 때, 수험생의 부담감도 줄고, 고등 교육에 미치는 영향도 긍정적일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리고 대학별 논술고사에 대한 검증과 평가를 통해 논술고사의 정체성을 확립도록 돕는 것이 국어교육학회의 고유한 역할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누구나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주장이라고 여겨진다. 그러나 기존하는 논술 평가 도구를 통해 논술고사의 정체성을 귀납적으로 구성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어떤 인간을 길러낼 것인가(교육적 관점), 어떤 사회를 구성할 것인가(정치·사회적 관점)라는 큰 질문 속에서 논술고사의 필요성과 정체성을 구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II. 통합교과형 논술로의 전환—그 실제적 요소들

II-1. 제시문 선정 범주, 원리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

발표자는 “지속적인 학습 설계”와 “지속가능한 독서”를 위해서는 제시문 선정의 대략적인 선정 원리나 범주가 제시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이전 논술 평가와 2008학년도 모의 논술 평가는 ‘논제+제시문’ 형식을 취하고 있다는 점에서 비슷하고 이러한 추세는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토론자 역시 제시문을 논제에 포함시킬 경우, 제시문 선정 원리나

범주를 제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논제+제시문’ 형식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든다. 제시문은 논제와 관련된 수험생의 자유롭고 활발한 사고를 방해할 가능성이 있으며, 논술고사가 제시문 요약 및 이해 능력을 측정하는 데 한정될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논술 문항은 목직함 질문을 담박한 방식으로 던지는 형식을 취할 필요가 있다. 논제가 이런 형식일 때, 수험생은 특정 도서나 자료에 묶이지 않고 자신의 사유 능력을 충분히 펼칠 수 있으며, 그 동안 축적한 독서 경험을 제한 없이 드러낼 수 있다. 논제와 관련된 제시문은 출제 과정에서 출제자에 의해 선정되는 것이 아니라 평가 장면에서 수험생에 의해 동원되어야 한다. 이런 점에서 프랑스의 바칼로레아 철학 과목 논술 문항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II-2. ‘통합 논술의 개념도 모호하고, 통합의 모습도 불분명하다

발표지는 대학마다 통합 논술을 정의하는 방식도 다르고, 통합 논술의 모습도 다양하다고 주장한다. 또한 다양한 교과서 지문을 통한 논술 평가는 선언에 그치고 있을 뿐, 실제로는 그렇지 못하다고 진단하고 있다.

토론지는 논술고사가 ‘통합 교과형’ 논술을 지향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 의문이다. 현재의 통합 교과형 논술은 몇 가지 점에서 문제적이다. 첫째, ‘제시문의 통합’이지, ‘사고의 통합’을 요구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둘째, 지나치게 높은 수준의 능력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이다. 통합적 사고란 대상과 세계를 차이와 관계 속에서 섬세하고 유연하게 바라보는 눈일 텐데, 현재의 논술 문항은 서로 다른 복수의 제시문을 관통하는 하나의 주제를 찾거나, A글의 관점을 B글에 적용하는 정도의 이해 능력을 평가하고 있을 뿐이다. 문항은 복잡하지만 요구하는 사유 능력은 단순하다. 문항은 비록 단출하지만 그 문항이 사물과 세계가 본래적으로 안고 있는 애매성과 복잡성을 전제하고 있을 때, 비로소 수험생의 통합적 사고를 요구할 수 있는 것이다. 한편, 몇몇 대학의 경우, 인문, 사회, 과학 등의 분야에 두루 걸쳐 있는 개념이나 지식을 유창하게 부러 쓰는 능력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는 지나치게 높은 능력을 요구하는 것이며, 학교 교육과정

이나 교실 수업과는 거리가 멀다.

Ⅱ-3. 논술고사 목표의 경우, 이전 시험과 구별되는 본질적인 차이를 찾기 어렵다

발표자는 대학마다 새로운 논술고사의 개념, 목표를 제시하고 있지만, 하나로 묶여지지 않는 측면이 있고, 이전 논술고사와 구별되지 않는다고 비판하고 있다. 그리고 대학은 2008년 논술고사가 ‘새로운’ 논술고사인 근거를 분명하게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새롭게 도입된 논술고사의 개념 및 목표가 불분명한 것은, 발표자의 지적처럼 대학 측의 “봉사 정신” 부족에 있기도 하지만, 논술을 정작 고민해야 할 주체의 임무 방기에도 있다고 여겨진다. ‘어떻게 우수한 학생을 길러낼 것인가’를 고민하기보다는 ‘어떻게 우수한 학생을 선발할 것인가’에만 골몰하고 있는 대학 측에 폭넓은 동의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논술의 개념 및 목표를 제시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무리인 것으로 보인다. 논술의 목표는 입학시험의 전형 자료로서 고민되기보다는 교육의 근본을 널리 살피는 과정에서 설정되어야 하며, 그런 측면에서 논술은 초·중·등 교육에 관계하는 주체들이 본격적으로 고민할 문제이고, 이들의 논의 결과가 정부 및 대학에 의해 수용되는 소통 구조를 지녀야 한다. 그리고 이렇게 설정된 논술, 논술고사의 목표는 교육과 사회에 대한 더 넓은 이해를 드러내 보이는 것이어야 한다.

Ⅲ. 대학별 고사로서의 정체성과 방향성을 위한 제안

Ⅲ-1. 통합교과형 논술이라는 개념에 대한 생산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발표자는 통합교과형 논술이 수험생 및 학교에서 실제적으로 수용될 수 있도록 내적 개념 규정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국어 교육 및 유관

학문 간의 학제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토론자는 '통합(다면)', '통합 교과형'과 같은 수식어를 제거하고, '논술'을 교육적 측면, 사회·문화적 측면에서 근본적으로 사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현재의 '통합교과형 논술'은 우수한 학생을 뽑겠다는 대학측의 비교육적 발상(교과 지식 평가 지향과 교육부의 대중융합적이고 방어적인 발상(사교육비 증가에 대한 반발 의식)이 교묘하게 결합하여 빚어낸 기형적인 논술고사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논술은 사람, 교육, 사회에 대한 넓은 이해 속에서 고찰되어야 하며, 이런 고민 속에서 그 정체성이 재구성될 때, 논술은 수업 장면에서든, 평가 장면에서든 의미 있고, 편안한 교육 활동으로서 자리매김을 할 수 있을 것이다.

III-2. 교육 주체들의 편의성을 고려하여

논술고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발표자는 대학이 논술고사와 관련하여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있고, 사교육이 논술에 대한 논의를 독점하면서 이에 대한 정보를 과장, 왜곡하는 상황에서 학회가 나서서 “고급 정보를 확보하고 활용 가능한 형태로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학회의 역할을 다소 소극적이고 추수적인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 이보다는 대학, 정부는 물론, 일반 사회, 학교 등이 널리 납득할 수 있는 논술의 개념 및 의의를 구체화하고, 이를 그들이 수용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학문 공동체의 역할이라고 본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교육의 근본, 사회의 근본을 바람직하게 바꾸는 데 '논술'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있다.

논술에 대한 다양한 시각과 논리가 양립하고 있다. 이들 관점은 대체로 1) 대수능에 대한 '보정'으로 논술고사를 보는 시각, 2) 논술고사를 사교육비 증가 측면에서 비판하는 논리, 3) 도구적 지식에 대한 강조가 심화된 상황에서 인문적 소양에 대한 관심을 유지하는 안전핀으로 보는 관점

등으로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들 관점은 논술이 갖는 부분적인 진리를 드러내고 있을 뿐이다. 평가 장면이든, 학습 장면이든 논술 행위는 세상에 대한 깊이 있는 성찰을 돕고, 교과에 대한 지식을 학습 주체의 관점에서 적극적으로 재구성하도록 하며, 해석 활동과 이해 활동의 행복한 만남을 주선하면서 ‘습득 중심 교육’이 아닌 ‘해석과 표현 중심의 교육’을 가능케 하는 교육적 장치로서 인식할 필요가 있다.

논의의 허점을 찾지 못한 토론자는 반론보다는 보론의 성격이 강한 글을 쓰고 말았다. 그리고 그 서툰 보론마저도 발표자의 논의에 기대고 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게으른 토론자를 시끄러운 논술 논의에 끌어들이며 모처럼 우아한 고민을 하게 해준 발표자에게 감사드린다.